

『조선시대 『心經』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한 토론문

변은미(한국고전번역원)

마현민 선생님의 이 논문은 『심경부주』를 대상으로 전개된 조선시대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시대 『심경부주』 이해의 흐름과 그 의미를 살핀 글입니다. 중국 유학사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 조선의 유학자들은 『심경부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퇴계 이황의 이 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계로부터, 그리고 퇴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심경부주』 논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타당한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요 쟁점인 ‘존덕성과 도문학’, ‘인심과 도심’, 그리고 『심경부주』가 수신과 치국의 수단으로 활용된 양상을 정리하고 있어, 조선시대 『심경부주』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토론을 준비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며,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선행 연구에서 조선시대의 『심경부주』 이해 흐름에 주목하고 정리해온 작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발표자께서도 여러 차례 인용한 홍원식 외(2008)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심경부주』 이해 흐름을 퇴계학파, 율곡학파, 그리고 양명학파와 실학파의 입장으로 분류한 뒤 학자들의 저서 및 서간 등 관련 논의를 담은 글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기존 연구들과 변별되는 논점을 상정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서술을 통해 충분히 부각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발표자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밝히고자 했던 지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2.

논문 전반에 걸쳐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를 대립 축으로 삼아 학파 간의 견해 차이를 당시의 배경과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계의 입장을 기준으로 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다양한 논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문적 흐름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을 주요 영향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곳곳에 보입니다.

6면:

이렇듯 후대로 갈수록 존덕성 공부에 치우친 것은 갈수록 정계와 학계에서 퇴계학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심경부주』에 대해 율곡학파의 공격이 치밀해지며 학설의 독창성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7면:

이 역시 존덕성과 도문학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17세기 후반 정치와 학술 영역에서 이념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11면:

율곡학파에서 이토록 『심경부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하며 개정한 것은 아마도 이를 통해 퇴계학

파와의 차이를 부각하고 학문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파 내부의 논리적 맥락이나 학술적 기반에 대한 설명은 다소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외부적 요인이라는 분석 역시 구체적인 정황이나 치밀한 논증보다는 추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학문적 계승의 맥락에서 학파의 입장을 내세우려 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도,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보완되고 정립된 논리적 기반 역시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도문학과 존덕성’, ‘인심과 도심’ 두 쟁점에 대한 학파 간의 뚜렷한 견해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 두 항목에서의 관점 차이가 각 학파의 학문적 입장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문학과 존덕성’에 대한 퇴계학파의 입장이 ‘인심과 도심’ 논의에서의 입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것이 학파의 학문적 전제나 사유 기반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 고민하신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완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아쉬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2장 ‘도문학과 존덕성’ 부분에서는 이익과 정약용의 견해를 함께 다루고 있지만, 3장 ‘인심과 도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심과 도심’에 대한 두 학자의 입장이 ‘도문학과 존덕성’에 대한 입장보다 오히려 기존의 이해와 분명한 변주를 보이는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문학과 존덕성’ 부분에서 이익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내용보다는 『심경부주』에 대한 이익의 부정적인 시각만을 부각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이 『심경부주』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도문학과 존덕성’의 문제에 있어 균형적인 입장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도문학’에 너무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이익이 존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퇴계 학맥을 철학적으로 따르고는 있지만 존덕성 일변도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심경부주』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도문학과 존덕성’에 대한 입장은 또 퇴계를 일정 부분 계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익의 태도에 대해 발표자께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4.

다산의 『심경부주』 이해에서 다산이 ‘존덕성’을 상대적 우위에 두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7면:

이어 정약용은 ‘주자가 언급한 존덕성’을 강조하며 존덕성과 도문학의 관계에 있어 존덕성이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약용의 『심경부주』 이해는 퇴계의 그것과 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절은 사람들이 ‘존덕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다산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性’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부분인데, 이를 두고 ‘존덕성’을 우위에 두었다고 분석할 수 있을지요? 제가 문면의 서술만 보고 오독한 것은 아닐지 염려되기도 하나, 이에 대해 고민하신 내

용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5.

또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 가운데 주자학의 자장 안에 있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심경부주』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제두 등의 양명학자와 같이 전혀 다른 학문적 맥락 속에서 『심경부주』를 이해한 또 다른 해석의 흐름도 있습니다. 비록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퇴계학과 중심의 『심경』 이해 흐름을 더 다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논문의 제목이 「조선시대 『심경』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6.

『심경』과 『심경부주』는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른 텍스트입니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논의는 『심경』 원문 자체보다는 정민정의 『심경부주』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경부주』가 실질적으로 『심경』의 대표적 유통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의의 초점이 『심경부주』에 맞추어져 있는 만큼 『심경』과 『심경부주』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게 어떨지요? 혹시 제목에 『심경』을 사용한 의도가 있다면 청해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퇴계로부터, 퇴계를 중심으로 『심경부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또 전개되었지만, 조선시대 『심경부주』 이해의 다양한 관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퇴계·율곡학파의 논리적 정합성을 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작업과 함께 그 범주 밖에서 다양하게 변개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좋은 논문으로 정리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